

쇼츠·릴스 시대에도 문예창작사랑, “마음 담은 글을 쓴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지난 1년 동안 20대 평균 독서량은 9.4권이었다. 13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5 사회조사’에 따르면, 이는 2011년(18.8권)의 절반 수 치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신문사 당 10,000편이 넘었던 신춘문에 응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책을 사랑하고, 문예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학생들은 존재한다. 우리신문은 마음을 담은 글을 쓰고 있다는 〈하늘새재〉와 〈소설창작단〉을 찾았다.

“시어 하나에도 이유 있어야” 마음 나누며 시 쓴다

‘하늘을 오르는 언덕’이라는 뜻의 시 창작 학회 〈하늘새재〉는 3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국어국문학과 소속 학회이지만, 성악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다. 각자 2주에 1~2개의 시를 쓰고, 격주로 열리는 세미나에선 자작시를 합평한다. 그렇게 한 해 동안 모인 시를 엮어 문집을 낸다.

항상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합평은



합평은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 받으며 퇴고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이환희 기자)

소중한 시간이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 받으며 퇴고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서은(국어국문학 2024) 씨는 “시어 하나를 가져올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늘새재에게 정해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 차장은 “우리는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나누며 시를 쓰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이뤄지는 합평 시간 소설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

소설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인

〈소설창작단〉도 있다. 시작은 90년대 문예창작 특기자 전형으로 뽑힌 국문과 학생들의 모임이었다. 문예 특기생들이 등단을 목표로 공부하던 학회였지만, 현재는 하늘새재와 비슷하게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활동 중이다. 매주 열리는 세미나에서 창작 소설을 합평하고, 이후 기성 작가들의 소설을 비평하는 시간을 가진다. 소설집도 발간한다.

합평은 그날의 작품을 쓴 ‘작가의 말’로 시작한다. 이날 김정욱(영어영문학 2022) 씨는 공모전 출품을 위해 썼던 소설 〈자유는 창공에 있구나〉를 가져왔다. 김 씨는 “하늘이 원래 자유를 의미하는데 하늘에서도 제약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소설을 썼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돌아가면서 각자 소설을 읽고 느낀 점을 작가에게 전한다. ‘완결성 있게 느껴졌다’는 호평부터, ‘대화가 이 정도로 친절할 필요가 있었나’하는 자유로운 비평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서덕순(소설창작) 교수도 합평 시간에 참여한다. 서 교수는 작가에게 개연성에 대한 질문을 하며 “내 소설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건넸다.

김 씨는 “창작이라는 개념을 접한 이후, 가치관과 영혼을 세상에 영원히 남길 수 있다는 특성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예 창작 잊혀진 문화는 아니다

소설창작단 권기윤(국어국문학 2022) 팀장은 “소설창작단을 하면서 소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발전했다고 느낀다”며 “세상을 보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하늘새재 신승민(국어국문학 2024) 씨는 “시는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 중 하나”라며 “무심코 지나쳤던 주위의 표정, 말투, 분위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차장은 “시가 ‘지는 해’만은 아니고, 오히려 뜨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짧은 형식인 시가 짧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에 맞는다는 것이다. 하늘새재 일부 회원들은 인스타그램 매거진을 운영해 3천 명이 넘는 팔로워에게 시를 보여주고 있다. 예전 같지 않을지는 몰라도, 아직 문학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심은 꿈

이금화(경희기록관)

경희의유산⑥ 『본관앞소나무』

9월부터 경희기록관은 우리신문과 함께 ‘경희 유산을 찾아서’를 연재한다. 서울, 국제, 광릉 캠퍼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은 물론 경희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역사적 기록물, 경희만의 고유한 정신 유산들을 중심으로, 그들에 관한 역사적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숨겨진 흥미로운 에피소드 등을 글과 사진으로 소개한다. 1차로 내년 여름까지 연재를 진행하고, 1년간의 연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을 보완해 2차 연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1년 전 11월 하순의 어느 날, 서울에는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다. 밤새 내린 눈은 캠퍼스를 아름다운 은세



1956년 8월 완공 직전의 본관을 바라보는 소나무.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계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1954년 봄 서울 캠퍼스가 탄생하기 전부터 이곳 고항산 기슭을 지켜온 수령 수백 년의 소나무들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

지는 피해를 입었다. 그중 특히 많은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본관 정면 좌측에 있는 소나무다.

『경희 20년』(1969년)에 의하면, 이 소나무는 본관 석조전이 지

어지는 장면을 지켜본 주인공이다.

1953년 12월 시작된 본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설립자를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눈에는 석공들의 일하는 모습이 한없이 느리게만 보였다.

돌이 쌓여 올라가는 속도보다 하루빨리 완공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앞서 내달렸기 때문이다. 매일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김명복 체육대학장과 김광선 학생처장은 이 소나무를 가리키며, ‘어서 저 소나무 키만큼이나 쌓아 올렸으면 좋겠다’고 탄원했다고 한다.

경희가 지금의 터를 잡고 캠퍼스를 조성하기 전, 고항산 기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경희 20년』에 따르면, 이곳 일대는 채석장이었다. 채취한 돌을 운반하기 위해 소달구지가 다니던 길이 한 줄기 있었고, 길 들머리에 허름한 초가가 몇 채 자리 잡고 있었다. 소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땀감으로 자른 흔적이 보이고, 낙엽마저 쓸어가 버린 그야말로 벌거숭이 황무지였다. 잡초마저 자랄 것 같지 않은 메마른 땅은 그저 황막한 산골짜기에 불과했다.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캠퍼스 후보지로 이곳을 방문

했을 때, 동행한 동료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교지로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오늘의 경희 캠퍼스는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초창기부터 매년 봄가을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이 나서 황무지 같은 캠퍼스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

캠퍼스 설립 후 20여 년간 그렇게 심은 꽃과 나무가 30만 본 이상이었다고 한다. 관리에도 공을 들여, 매년 봄과 여름엔 소독 작업을 했고, 학생들은 송충이 잡이에 나서곤 했다. 이런 노력은 단지 캠퍼스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대학의 사명은 전인적 인격을 갖춘 문화인을 키우는 데 있으므로 자연에서 인간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서 자연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 경희의 오랜 철학이었다. 지금 우리 캠퍼스를 이루고 있는 나무와 꽃, 돌과 연못들은 모두 이런 철학의 반영이며, 선배 경희인들이 한 마음으로 일구고 가꿔온 소중한 유산이다.